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논장」, 「서강인」,
「오늘의 책」, 「장백」 대표의 연행 사건(1997.10)

- 상황개괄, 연행자 명단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입장
〈성명서〉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논장」, 「서강인」, 「오늘의 책」,
「장백」 대표의 강제연행 및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 전국연합 성명서
- 경찰청 압수증
-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출범식
 - 진행상황 보고/ 참가단체
 - 〈성명서〉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및 출판사, 인권단체 탄압을 규탄하며
 - 공대위 회의록
- 인권하루소식 1997년 10월 30일 996호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11월 12일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기구 발족
11월 28일 1017호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 기소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논장」·「서강인」·「오늘의 책」·「장백」 대표의 연행 및 압수
수색에 관한 보도자료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논장」·「서강인」·「오늘의 책」·「장백」 대표의 강제연행 및 압수
수색을 규탄한다

<상황개괄>

97년 10월 29일 오후 12시 40분경, 각서점 동시 경찰청 보안과 형사들이 압수수색영장과 체포
영장을 제시한 후 서점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논장서점에서 「공산당선언」외 28종 50여권의 서
적과 서점운영에 필요한 거래장부 및 매출장부를 압수하는 등 4개서점 공히 이적표현물판매혐의
로 서점대표를 연행해 감. 또한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여 「실천의 변증법」외 사회과학서
적 다수를 압수해 감.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연행자명단>

「논장」- (이재필, 32세)

「서강인」- (신영균, 34세)

「오늘의 책」- (김봉환, 40세)

「장백」- (김용운, 32세)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의 입장> - 성명서 참조

지난 4월 15일에 이어 되풀이되는 대학가 소규모영세 사회과학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및 대표
연행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의 지적
풍도를 파괴하는 몰상식한 처사이며 이는 현정권이 년초부터 계속된 김현철/한보/성지인 부정비
리에 따른 불신과 대선정국에서 형성된 정국운영의 난맥상 등 정권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공안정
국 조성을 통해 회피하고 나아가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음모의 일환이라 규정하고 모든 양심세력
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

1997년 10월 29일

●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안정국 각성하라!

● 학문서점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

성명서

763-8195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논장」·「서강인」·「오늘의 책」·「장백」 대표의 강제연행 및 압수 수색을 규탄하며

□ 1997년 10월 29일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대표 4인이 이적표현물 소지, 전시, 판매 혐의로 각기 서점과 자택 등에서 서울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5일 「그날이 오면」·「장백서원」·「풀무질」에 이어 또다시 되풀이된 사건으로서, 이와 같은 서점 대표의 강제연행과 합법적 출판간행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며,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을 앞세운 문민정권의 자기부정인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복거라고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 우리는 이번 서점 대표의 강제연행이 단순한 이적표현물 단속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보/김현철 비리 그리고 언이어 한보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정치인의 무능력과 부패, 비리 등으로 초래된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대선정국에서 형성된 정국운영의 난맥상 등 현 김영삼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구시대적이고 폭압적인 공안정국의 형성을 통해 회피하고 나아가 민주진보운동세력을 탄압함으로써 부도덕하고 국민억압적인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음모의 일환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군사정권 하에서 비밀비재하였던 인문사회과학서점에 대한 탄압의 재개와 시내 대형서점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출판간행물을 이적표현물로 삼아 영세한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 이에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중 생존권의 수호를 위하여 모든 양심적인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작금의 폭거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연행된 서점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압수 출판물은 즉각 반환하여야 한다.
-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번 서점대표 연행 사건의 책임자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 우리는 현정권이 노동법 개악, 한보/김현철/정치인의 부패와 비리로 야기된 국민적 불신과 대선정국에서 형성된 정국운영의 난맥상 등 총체적인 정권의 위기를 구시대적인 공안정국의 조성을 통해 회피하려는 모든 노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모든 양심적인 민주세력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 언론,출판의 자유 말살하는 공안당국 각성하라!
- 학문사상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방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오빌딩 4층

전화: 921-4090 팩스: 921-4094 팩시밀리ID: NADUK 하이텔ID: naduk.

지정수신인 : 인권운동사랑방

수신 : FAX/8227415364(인권운동사랑방)
 발신 : NADUK
 송신 시각 : 97/10/30 14:58
 수신 시각 : 97/10/30 15:01
 메시지 ID : M97100036NADUK
 제 목 : 경찰은 사회과학도서 서점에 대한 시대차

1. 서울 경찰청 소속 남영동 대공분실은 29일 성균관대 앞 '논장', 연세대 앞 '오늘의 책', 서강대 앞 '서강인' 고대 앞 '장백서점' 등 4개 서점의 대표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로 연행, 구속하였다.
2.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자행된 사회과학도서 서점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을 도구로 하여, 그것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통한 '건수 올리기'식의 마구잡이 탄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경찰의 사회과학도서 서점 대표의 연행, 구속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한 도서의 판매나 소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조차 지키지 않는 채 자행된 마구잡이 탄압으로 심각한 반인권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3. 또한 이들 도서 서점에 대해서 경찰이 이적표현물로 문제 삼고 있는 도서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 시내의 대형 유명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이들 도서들은 이미 합법적인 출판사를 통해 출판된 도서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들 사회과학서점의 대표들을 연행, 구속한 것은 힘이 없는 영세서점을 대상으로 손쉽게 '건수 올리기'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찰당국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반상식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 구속한 서점대표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1997년 10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 李昌馥)

6	30일 연행 90명	
7	시행령 개정도	1
8	국보법 개정 (1997.10.25)	1
10	외국인법 개정 (국안가)	3
11	공정법 제정 해산	2
12	국회법 개정 (국안가)	2

경 찰 청
 사법 경찰관리 김 병 도



번호 6
 제 3 호
 수신 마포구 노근로동 3-61 신명훈
 99년 10월 29일
 제목 : 압수증명
 다음과 같이 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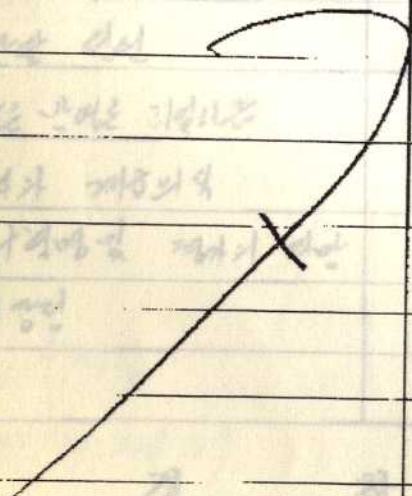
번호	품명	종	수량	비고
1.	제2의 반적		10	
2	99 세내 캐시용 세심망기		5	
3	99 미션 리프트용 부속 한가지		1	
4	빙판용 기름 (제 6차 빙판용 기름 용기 2개 등) (빙판용 ~)		5	
5	주체의 혁명, 조직판		3	
6	노동자 연대 72호 (2)		10	
7	" 74호		10	
8	사람들의 청안 드		1	
9	국민감독 (기레노트)		1	
10	외 혁명정당이 국민관가		3	
11	공산당 선언 해설		2	
12	국가보안법 해의 시위시위를		2	

경 찰 청
 사법 경찰관리 강 병 도



(인자)
 25.

번호	품종	수량	비고
13	러시아 1905년 책	6	
14	노동계급의 막강한 세력	4	
15	적후라 기적	3	
16	홍 피업의 의미	9	
17	민주노동운동의 근원과 민중운동	1	
18	머슴대항은 귀한 투쟁	4	
19	10월로 가는 길	2	
20	명적 홍 피업	6	
21	인간 복성이 사회주의의 건강론	4	
22	국제 사회주의의 본질 사회주의	3	
23	경리 장부	2	
24	진화 변혁부	1	



경 찰 청

제 호

수신

유서

년 월 일

제목 : 압수증명

다음과 같이 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호	품목이름(가, 나, 다, 라, 마)	종류	수량	비고	증명인명
1	가죽인물(가)				
2	가죽인물(나)				
3	김도봉의 자보			8	백산인상
4	자보로(가)상			2	이문출인상
5	자보로(가)하			2	"
6	자보로(나)			2	"
7	자보로(나)상			1	"
8	자보로(나)하			1	"
9	증서상 인인			6	대는
10	부원관인인 리설리증			3	백의
11	역사나 개성의학			1	지동
12	변자적명인인 개성의학			1	신진하
13	대명인			10	국성인상

사물대
인인
국성인?

경 찰 청

사범 경찰관리

강 용 기 (인)

1997. 10. 29
1997. 10. 29
1997. 10. 29

경 찰 청

번호	품 종	수 량	비 고
14	대형 개문 활판	8	원본국의 전자판본이다.
15	대어 활판 I)	1	복부
16	대어 활판 II)	1	"
17	대어 활판 (III)	1	"
18	수원 송의 뿌리장 꽃사	수 량	기름
19	활판의 기구장	4	두려
20	활판 활판	1	"
21	4점 부속	2	"
22	부속의 활판 부속	1	동네에
23	critic 2종	119	공판대용
24	노란 피아	6	IS
25	공판 부속	4	노란색

25.

위 확인함

1991. 10. 29

확인자 이준영 ()

경 찰 청

제 호

수신 이 재 필

91년 10 월 29일

제목 : 압수증명

다음과 같이 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비 고
	공산당 선언		4	
	경례환론		1	
	꽃피는 처녀		2	
			2	

경 찰 청

사법 경찰관리 경위 김희성

경 찰 청

제 호
수신 이 재 찰

1971년 10월 19일

제목 : 압수증명

다음과 같이 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비	고
	97세세기 책읽기 세습읽기		49		
	광판하게 (97, 8월호)		1		
	한국 민중사 I, II		2		
	강좌철학 제1권		1		
	종북38위사람됨의철학 I, II		2		
	실천론, 모순론		1		
	노동권선 (1971. 10. 28호)		2		
	공산당선언 (새날)		1		
	공산당선언 (백산서당)		1		
	대중행동광장		2		
	한국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		1		
	철학 강의 1, 2		2		
	북승은해방구		9		

경 찰 청

사법 경찰관리 경위 김 키 성



경 찰 청

제 호

수신 이 재 쥘

97년 10월 29일

제목 : 압수증명

다음과 같이 압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호	품 종	수 량	비 고
	소외당생의 뿌리를 찾아서	1	
	역사와 계급 의식	1	
	NL론 비판 I	1	
	조선전사	5	
	김일성 선집	1	
	항일 무장 투쟁사	1	
	레닌 저작집	8	
	현대 조선 역사	1	
	북한 현대사	1	
	그리움 이음 관 노침 바타리안트	2	
✓	거래장부	5	
✓	매입매출표, 금관출납부	2	
	변종의 역사	2	

경 찰 청

사법 경찰관리 경계 김 취 성



인권 자료실		
등록		번호
98 2/26	B7	55

언론 · 출판 · 학문 ·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 1212 1212

8222

인사장대 -

대포: _____

참석대상 : 형제끼리 형제끼리. → 7-1212 1212.
ID: 내각이야

□시간: 1997년 11월 11일 오후 2시:30분

□장소: 고대앞 「장백」서점

□ 진행순서 □

1. ----- 개회사 사회 = 남양연계가
2. ----- 참가단체 인사
3. ----- 진행상황보고
4. ----- 대표인사
5. ----- 연대사 (Norm.)
6. ----- 성명서 낭독
7. ----- 실천활동 결의

□ 참가단체 □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 62년 : 독립문, 2남이문, 남산, 인, 7남, 8남.

- 「전국출판노조협의회」

: 교보문고노조, 종로서적노조, 계몽사노조, 월간 『말』노조, 대교노조, 정보성노조, 서울지역인쇄노조, 서울지역출판노조

✓ 「인권운동사랑방」

- 「국민승리 21」

- 「고려대총학생회」

- 「연세대총학생회」

✓ 「성균관대총학생회」 - 1972년

- 「서강대총학생회」

-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함께 하는 출판사: 가서원, 갈무리, 개마고원, 거름, 까치, 녹두, 녹색평론사, 당대, 동녘, 두리, 두레, 들불, 들배개, 대동, 민맥, 보리, 백의, 백산서당, 사민서각, 사계절, 살림터, 실천문화사, 소나무, 새물결, 새길, 새로운 사람들, 새날, 생활지혜사, 아침, 역사비평사, 연구사, 일빛, 지성사, 창작과 비평사, 청년사, 책갈피, 풀빛, 풀무질, 한울, 한울림」 40년 + 10년 (뜻 같음)

서점·출판사·동아리

국립 7건에 대한 12000원, 20000원 → 3000원 14년
10000원 7년 7000원 7년 (10000원)
7000원
10000원 14년 10000원 7년

□ 진행상황 보고 □

□ 10월 29일: 오후 12시 30분경, 경찰청 보안과 사복형사들이 찾아와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서점과 가택에 대한수색을 실시하여 사회과학서적을 압수하고 서점대표들을 연행해감. 이에 즉각 「서울 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이름으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언론사와 전국 민주단체에 보내고 컴퓨터통신에 올렸음. 공동대책위 구성의 필요성 제기됨.

□ 10월 30일: 한겨레, 조선, 동아에서 기사화함. 서점모임과 출판사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함.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보완하여 유인물화 하였고, 민가협 목요일집회와 전국대학생언론협의회 주관 행사에 참여해 규탄연설과 성명서낭독을 하였음. 민변의 조상희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선임되어 변호인 접견함.

□ 10월 31일: 한겨레 신문 구속영장청구 사실 기사화. 서점대표들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전시, 판매 혐의로 구속됨. 용산서와 남대문서로 나뉘어져 대공분실 조사를 받음.

□ 11월 3일: 서점모임과 출판사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모임을 가지고 서명운동, 광고투쟁, 헌법소원제기 등 실천투쟁을 논의함.

□ 11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인권영화제 '레드 헌트' 상영을 근거 삼아 국보법위반 혐의로 연행, 구속됨.

□ 11월 6일: 공대위 구성을 위한 2차모임을 갖고 성명서 초안 검토, 공동대표 선임건, 참가단체 문제를 논의함. 11일 공대위 출범식을 갖기로 함.

□ 11월 7일: 한겨레신문에 광고 나감. '양심수 논쟁 긴급토론회'를 시민,인권단체 중심으로 진행함. 서준식대표 구속관 관련 인권단체 대책회의가 있었음. 서점대표 4명 모두 서울구치소로 송치됨.

□ 11월 8일: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하여 서명운동, 모금운동, 유인물 홍보활동을 벌였음.

□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서명운동, 모금운동, 유인물 홍보활동을 벌였음.

□ 11월 10일: 참가단체와 일간지 신문사에 공대위 출범식 관련 팩스를 보냄.

h

2차 기관지 발송 예정

11월 3일

2차 기관지 발송 예정

11월 8일 5월 21일
11월 9일 4월 15일

성명서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및 출판사, 인권단체 탄압을 규탄하며

㉑ 지난 10월 29일 12시 30분경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논장」·「서강인」·「오늘의 책」·「장백」과 출판사 「이웃」, 「청년문예」 관계자 구속, 11월 4일 인권영화제 상영을 이유로 「인권운동 사랑방」대표 서준식씨를 연행하는 탄압이 자행되었다.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전시, 판매혐의로 연행, 구속되었다. 이와 같은 서점대표와 출판사 관계자, 인권단체의 합법적 출판간행물과 창작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 학문,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며,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을 앞세웠던 문민정부의 자기부정인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㉒ 얼마전 법무부는 ‘우리 나라는 양심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폭력혁명을 선동하지도 않은’ 수많은 양심수들이 아직도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같은 영화를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면 무죄이고 인권단체가 상영하면 유죄인 잣대는 무엇이며, 같은 사회과학서적에 대해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면 문제되지 않고, 대학가 영세서점에서 판매하면 문제가 되는 이중적 법적용은 무엇인가. 건강하고 선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회에서 양심수는 사라질 수 없다. 사상은 사상으로, 학문은 학문으로, 예술은 예술로서 비판되고 극복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㉓ 우리 나라의 역대 헌법은 모두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왔다. 그럼에도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면, 공안정국 형성을 위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아 왔다. 이제 더이상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사상 표현의 자유를 유린당할 수는 없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야 한다. 서점주인은 자유롭게 책을 팔며 생계를 유지해 나갈 권리, 학생들은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출판계는 내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계는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㉔ 우리는 공안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준동에 맞서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심있는 양심세력이 모여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생존권의 문제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연행, 구속된 서점대표와 출판사 관계자, 인권단체 대표의 즉각적인 석방과 압수 출판물 및 창작물에 대해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한다.
- 우리는 현정권이 국가운영의 실패로 폭발하고 있는 국민의 불만을 회피하고,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구시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모든 노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양심적인 민주세력과 함께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1.11.)

- 언론 · 출판 · 학문 ·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실천활동 결의 □

우리는 현 공안탄압에 맞서 언론 · 출판 · 학문 · 사상 표현으로 대표되는 국민기본권 수호와 헌법정신 훼손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활동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국민들에게 공안탄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유인물과 컴퓨터통신 홍보, 광고투쟁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2. 우리는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의지를 모아내기 위하여 대국민 서명운동을 힘차게 벌인다.
11월이나 12월가 예정.
3. 우리는 현 공안탄압이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알리기 위하여 **헌법소원제기운동을**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친다.
헌법소원 제기 운동 등.
4. 우리는 공안탄압을 받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힘차게 공동투쟁을 벌인다.

법심 56

태풍이사:

간접이사의 이권유지 문제. (사태 +
 재판장에게. 이후, 재판장의 귀족적 기풍이 재판관에게에 대한
 재판관 특권적 기풍이 재판관에게 대한 불신을 풍요로운 재판
 기풍에 이상사회의 불신을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 사법계.
 → (사법계)의 기풍을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풍요로운 재판
 불공정판과 불공정판이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재판관, 이권유지 불공정 판을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민중의 재판관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재판관. (사법계)를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이 재판관의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재판관.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재판관에게에 대한 불신을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 수신: 인권운동사랑방
 참조: 실무관계자
 발신: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제목: 공대위 출범식 알림
 발신일: 97년 11월 10일

1. 사회과학서점대표 구속과 출판사 탄압에 애경과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귀단체와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10월 29일, 사회과학서점 「논장」·「서강인」·「오늘의 책」·「장백」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표 연행사건이 발생한 후 서점모임과 출판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대책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점과 출판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국민기본권 침해이며 나아가 헌법정신 훼손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연대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1월 3일, 6일 두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3. 준비모임에서는 대국민 유인물 홍보, 1만인 서명운동, 신문광고투쟁, 컴퓨터통신 선전, 헌법소원제기 등 선천사업이 논의 되었고 11월 11일 공대위 출범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4.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전국출판노조협의회」(교보문고노조, 종로서적노조, 계몽사노조, 월간 『말』노조, 대교노조, 정보성노조, 서울지역인쇄노조, 서울지역출판노조)·「인권운동사랑방」·「국민승리 21」·「고려대총학생회」·「연세대총학생회」·「성균관대총학생회」·「서강대총학생회」·「사단법인 민족문화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함께 하는 출판사: 가서원, 갈무리, 개마고원, 거름, 까치, 녹두, 녹색평론사, 당대, 동녘, 두리, 두레, 들불, 들배개, 대동, 민맥, 보리, 백의, 백산서당, 사민서각, 사계절, 살림터, 실천문학사, 소나무, 새물결, 새길, 새로운 사람들, 새날, 생활지혜사, 아침, 역사비평사, 연구사, 일빛, 지성사, 장작과 비평사, 정년사, 책갈피, 풀빛, 풀무결, 한울, 한울림」

5. 공대위 출범식은 11월 11일(화) 오후 2시, 고대앞 「장백」서점에서 있습니다.

6. 각단체 참석여부를 11월 10일 오후 9시까지 「풀무결」서점(745-889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서초안 첨부

감사합니다.

- 끝 -

서점 370123-003
 수신 인문학중앙당
 반신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 서점포인
 제목 4.15 인문사회과학서점 침탈 규탄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결과

新焚書坑儒

4월 15일 12시 반에
 서울대 앞 '그날이오면'
 고대앞 '장백'
 성공관대 앞 '풀무질'에서
 샅샅히 힌트 인이 일어났습니다.

잡자기 달려든 사복경찰 15여명이
 책을 압수하고
 사진을 찍고
 위협적인 말도
 서점주인들을 잡아 갔습니다.

당해한 책들은 내일서점에서부터 버리기 걸리는 책인데도
 대학생들이면 흔히 볼수 있는 교양서적들인데도
 마치 근 격을 지은 사람 취급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4월 15일 대낮에
 서울 한 복판에서는
 역사책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4월 22일 오후 4시에 성대 금잔디 광장에서는 고대, 서울대, 성대 학생 200여명이 모여서 '4.15인문사회과학서점 침탈 규탄과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학생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단상선전은 빈어낸 학생 등지등이 있기에 구속되어 있는 시점 대표님들도 더욱 담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가첩 어머니님의 생생한 말씀을 되씹어 봅니다. "이놈들 인기주입 개악한 때부터 알아왔어야 한다. 국가보안법가지고 빙빙이 하는 놈들이 이제 번 것을 다한다. 집값은 서점 앞만들 집아가고 학생들 책도 마음대로 훔치게 할 작정이다. 문민 정부랍시고 4년동안 실정만 차더니, 이제 감추고 싶은가 보다. 국민들을 다 바보로 만들고 싶은 계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자유, 인치사안의 자유를 유신하고 있는 공권인부에 더 이상 담하고 있을 수 없습디다. 주체의 권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서점주인은 자유롭게 책을 팔며 생계를 유지해 나갈 권리, 학생들은 보고싶은 책 마음껏 보면서 공부할 권리, 출판계는 내고 싶은 책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권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스스로가 자유롭게 판단하며 자유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깃밟는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자신의 감추어왔던 본성을 야만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4월 29일, 그동안에 각자 분노하고 인파마의 했던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하였습니다. 책을 사랑하고 서점을 소중히 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서로 믿음이 있어 인사를 나누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는 연결이 곧 애착이 되고 믿고 기대가 되고 그 다음은 이치로 진행했습니다

1. 회의에는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 서점포럼에서 전국대약 인사적, 연세대 오늘의 책, 시립대 삼의서점, 숙명대 숙명인, 서강대 서강인, 명동농 논장서점, 서울대 그날이오면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출판사는 공간, 간무리, 깊은샘에서 나오셨고, 미디어 모음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2. 공동대책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참석하시기로 하신 단체의 대표님들이 다른 일로 불참하신 관계로 구체적인 소식제의 결성 논의 보다는 공동대책의 일포성에 대한 공유와 함께 서로 연락을 유기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연락/실무 책임자를 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점포럼의 막내인 명동농 논장서점(785-3107)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공통 성명서는 우선 출판문화계 차원의 집중적인 성명서 형태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이주 유인물로 등기 제작하여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은 갖는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압수 도서 판매전

1) 의의 : 시내 대형서점에서는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대학상의의 소재로는 상용되고 있는 한번적인 출판물을 압수해간 공안당국의 만행을 알려내고, 그 이익금으로 구속당한 시점대로 세분의 소송금과 규탄 성명 광고 기금을 마련합니다.

2) 방법

- 침탈당한 서점이 소재해 있던 대학의 총학생회와 협조하여 대학교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유인 매각을 돕고 판매금을 기탁합니다.
- 5월1일 노동절 집회 장소(명동공원)에서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판매전을 기탁합니다. 입수된 도서는 이밖에 입수당한 도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입수당한 적이 있던 모든 도서를 총망라하기도 하였습니다.
- 전시판매하는 형태 뿐만 아니라 기간 압수된 도서의 목록을 소개한 산만한 내용과 함께 서울지역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소개하고 도서주문서를 첨부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고서 각 서점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형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판매전 예상 일시 : 1997년 4월 29일(화) ~ 5월 2일(금)

4. 이적포현책 사제의 개념에 대한 헌법소원을 서울지역인문사회과학 서점의 권리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귀에설면 귀설이, 보에설면 보설이 식으로 담하고 있을 수 많은 없습니다. 이적포현책 전시, 판매라는 딱지를 공안당국의 필요에 의해 붙이고 실을 때 붙이면서, 영세한 서점의 생존권까지 깎아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으로써 민변의 협조하여 헌법소원은 세우하기로 하였습니다.

5. 학문사상의 자유 쟁취 일일주점

- 추후 안이 사안들은 진행 한 후 더욱 더 여론의 힘은 모아내는 과정에서 계획하기로 하였

습니다.

8. 다음 모임은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따로이 잡지 않고 판단하여 연락을 다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7. 롯데 언락처가 된 장소는 명륜동 눈잡서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8. 다음은 성명서 초안입니다. 글.

성명서

-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면」·「장백서원」·「풀무집」 대표의 구속수사 및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① 1997년 4월 15일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3곳에 대해 압수수색과 함께 대표 3인이 이석표현물 소시, 전시, 판매 혐의로 사기 서점과 사역 중에서 서울경찰청 남영동 내공분실로 강제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이와 같은 서점 대표의 강제구속과 합법적 출판간행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며,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을 앞세운 문민정권의 자기부정인 농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복거라고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② 우리는 이번 서점 대표의 구속수사가 단순한 이석표현물 난속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보/김현철 비리 그리고 연이어 한보정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정치인의 무능력과 부패, 비리 등으로 초래된 현 김영삼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구시대적이고 폭압적인 공안정권의 형성을 통해 회피하고 나아가 부도덕하고 국민억압적인 정권의 장출을 기도하고자 하는 음모의 전초가 아닌가 우려하는 바이다.

이것은 군사정권 하에서 비밀비재하였던 인문사회과학서점에 대한 탄압의 재개와 시내 대형 서점에서도 취급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출판간행물을 이석표현물로 삼아 영세한 내화가 사회과학서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③ 이에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중 생존권의 수호를 위하여 모든 양심적인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작금의 폭거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강제구속된 서점 대표의 즉각적인 석방과 압수 출판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슈와솔루션

출판부 : 300호
전화 : 02-385-0111
팩스 : 02-385-0112
1000년 4월 17일 (목)

-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번 서점 대표의 연행 사건의 책임자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140-15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01호 (우편번호 150-010)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대학가서점 4곳 대표 연행 압수수색

대학가서점 4곳 대표 연행 압수수색

연초부터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최근 서울대, 고려대 앞 '대학가서점' 등 4곳의 사회과학 서점 서포터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을 당한 서점의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대학가서점 4곳의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

인권하루소식

1997년 10월 30일 (목)
 제 9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

지난 4월초 고려대 앞 '장백서점'등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세 곳이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또다시 성균관대 앞 '논장'등 서점 4곳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장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낮 12시40분경 경찰청 산하 남영동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은 일제히 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혐의로 서점대표 4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서점은 '논장'(사장 이재필), 연세대 앞 '오늘의 책'(전 사장 김봉환, 현재 조합형태로 공동운영), 서강대 앞 '서강인'(사장 신영균), 고대 앞 '장백서점'(사장 김용운) 등이다. 이 가운데 장백서점 사장 김용운씨는 지난 4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날 압수된 책 목록을 보면 『한국민중사 I, II』(풀빛출판사) 『세계철학사 I-III』(녹두출판사) 『사람됨의 철학 I』 『북한현대사』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녹슬은 해방구』 등 대부분 출판된지 10여년이 지난 것들로, 경찰이 새삼 문제를 삼는 것은 또다시 '건수올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8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자본론 I-III』(비봉출판사)도 압수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이적표현물 적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본론』은 서울대 경제학부 전공선택 과목인 '마르크스 경제학'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을학기 수강인원은 3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사회의 지적풍토를 파괴하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총체적인 정권의 위기를 구시대적 공안정국의 조성을 통해 회피하려는 모든 노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목록으로>

인권하루소식

1997년 11월 12일 (수)
 제 10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지난 10월 29일 <논장> 등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점대표 구속사건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힘써온 서점모임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심범섭)가 11일 오후 2시30분 고려대 장백서점에서 공식발족했다.

공대위는 “최근 인문사회과학서점 대표를 비롯해, 출판사 「이웃」 「청년문예」 관계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모두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영화를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면 무죄이고 인권단체가 상영하면 유죄인 잣대는 무엇이며, 같은 사회과학서점에 대해 대형서점에서 판매하면 문제되지 않고, 대학가 영세서점에서 판매하면 문제가 되는 이중 법적용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이에 공대위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생존권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안탄압 현황을 알리는 홍보작업 △대국민 서명운동 △헌법소원제기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전국출판노조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및 창작과 비평사, 살림터 등 40여개 출판사를 비롯해 압수수색을 당한 사회과학서점이 위치한 대학 총학생회 4곳이 참여했다.

◇행당동 철거과정에서의 성추행 근절과 관련자처벌 촉구 및 서명대회◇
 12일(수) 낮12시 덕수궁 정문앞

<목록으로>

인권하루소식

1997년 11월 28일 (금)
제 10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10월말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판매)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회과학서점 주인 4명 가운데 이재필(논장서점 사장) 신영균(서강인) 씨가 26일 기소되었다. 지난 4월 같은 건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온 바 있는 김용운(장백서점) 씨는 검찰의 구속취소로 27일 새벽 석방됐다. 또 연대앞 '오늘의 책' 전 사장 김봉환 씨는 이미 13일 보석결정을 받았다.

<목록으로>